

서예가 이돈홍 24~30일 서울 백악미술관서 일중서예대상 수상 기념전

“50년 필묵’ 수많은 이 현혹해도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더라”



지역을 대표하는 원로서예가 학정(鶴亭) 이돈홍(李敦興·69) 선생. “평생 물이 흐르듯, 폭포가 쏟아지듯 기가 나오는 글을 쓰고 싶다”는 학정 선생은 천변만화의 서예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예술인 중 한 명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농익은 그의 작품에서는 아직도 조용한 변화가 느껴진다.

학정 선생이 서단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또 있다. 평생 자신의 예술세계와 함께 후학양성에 매진했기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학정서예연구회에는 아직도 100여명이 넘는 원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학정 선생이 지난 2012년 ‘제3회 일중서예대상’을 수상하면서 받은 상금 2000만원을 연우회와 국제서예가협회에 각각 1000만원씩 내놓은 이유도 “후학을 양성하지 않고는 서예의 미래가 없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올해로 서력 50년을 맞은 학정 선생이 내년 고회를 앞두고 오는 24~30일 서울 관훈동 백악미술관에서 ‘일중서예상 대상 수상 기념 초대전’을 갖는다.

‘일중서예상’은 (사)일중서생기념사업회와 고(故) 일중(一中) 김충현(1921~2006년) 선생의 업적과 예술



방회천지의외(放懷天地外)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한국미술의 발전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선정해 2년마다 시상하는 것으로, 한국 서단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일중 선생은 동방연서회를 창설해 이사장을 역임했고, 국전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문교부 겸임교과서 편찬위원을 지냈다. 그는 반세기에 걸

쳐 주로 서예교육과 ‘우리 글씨 쓰는 법’ 등 저서를 통해 서예 교육에 전념한 현대 한국서단의 거목이다. 그동안 남전 원종식 선생과 모암 윤양희 선생이 각각 이 상을 수상했다. 학정 선생은 이번 전시에서 한화 스승인 중헌 윤정복 선생의 ‘유동복 적벽’ (遊同福赤壁) 시에 나온 글귀인 ‘방회천지의외(放懷天地外) 전시 대자

를 비롯해 60여 점의 근작들을 전시한다.

‘방회천지의외’는 윤정복 선생이 화순 동복 적벽을 유람하며 회포를 적은 글로, 그가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글귀이기도 하다. ‘주야로 그치지 아니하는 서법의 강에 회포를 풀어보고자 했다’는 학정 선생의 마음이 담긴 작품이다.

또 이번 전시에서 인상적인 작품은 ‘반야심경’이다. 그는 최근 2년간 매일 오전 6시에 서실에 나와 2시간씩 반야심경 260자를 작품으로 옮겨 적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는 그렇게 완성한 작품 500여 점을 전국 사찰 선방(禪房)에서 참선하는 수행자들에게 보였다. “선방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학정 이돈홍 선생은 “고회를 앞두고 독창적 서풍을 이룩하고 서예교육을 선도한 일중 선생을 기리는 상을 수상하면서 초대전을 열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며 “스무 살의 나이에 서단에 들어와 지난 50년 세월을 걸어오면서 뜨거운 심장으로 때로는 흥겨운 정취로 완성한 작품이 수많은 사람을 현혹할 수 있으나, 단 한 사람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 출신인 학정 이돈홍 선생은 국제서예가협회장,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학정서예원과 조선대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5·18 국립묘지 민주주의 문 휘호, 화엄사 연기암 원웅당 및 주련, 백양사 일주문과 서용 큰스님 기적비, 해인사 팔만대장경 관전 세계문화유산 지정 기념비 등이 학정 선생의 작품이다. 문의 062-222-4155.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다큐멘터리 연극 ‘100% 광주’를 보고 나서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100% 광주’.

“색다른 형식 신선” 관객 적극 호응 ‘광주의 100%’ 다 보여주진 못했다

도시 완벽분석 안돼 표피적 질문 그쳐

“우리가 광주입니다.” 초록색 무대 위 시민들이 자기 소개를 시작했다. 자식을 결혼 시키고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어머니, 취업 걱정이 많다는 여대생, 로봇만들기가 취미인 초등학생, 12월 세상에 나올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 광주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외국인,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끌려간 근로정신대 할머니까지. 광주를 대표하는 100명의 출연진은 제작진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삶과 신념, 취향, 비밀을 이야기하고, 그 질문들은 관객의 관객들에게도 생각거리를 던져줬다.

19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연극 ‘100%광주’는 100명의 시민을 통해 광주를 들여다본 흥미로운 작품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에술극장과 독일 아티스트 그룹 ‘리미니 프로토크’이 제작한 ‘100%광주’는 거주 연령, 성별, 거주지 등 통계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범한 시민 100명을 캐스팅해 제작했다.

의 내용에서는 아쉬움을 줬다. 세계 17개 도시에서 작품을 제작한 제작진은 3분의 2는 공통 질문, 3분의 1은 그 도시에서 발굴한 질문을 던진다.

이번 작품에서는 외국 스태프이라는 한계로 직접적 소통이 어렵고, 리서치 과정도 짧아 도시를 완벽하지 분석하지 못하면서 광주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볼만한 질문들을 많이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 제작진은 5·18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했지만 표피적인 질문들만 던지는 데 그쳤다. 또 관객 교육 등 정서와 맞지 않는 장면과 보편성을 얻지 못한 일부 질문들은 긴장감을 떨어트렸다. 무엇보다 공연 시간이 두 시간에 육박하면서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졌다.

공연 후 만난 슈테판 카에키 등 연출팀은 “출연진들이 타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답해 인상적이었고 시청제도 찬성과 체벌 경험에 대한 의견이 높아 놀랐다”며 “5·18 등 광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은 피드백을 통해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마르케스 별세

17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외곽의 코요아칸에 있는 자택에서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콜롬비아 출신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사진)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존경받아왔다.



카에서 태어났다. 1950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고타 국립대 법학과를 중퇴한 그는 바랑키야 지역의 신문기자로 일하던 중 노동자 학살 사건 이후 완전히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학씨가 ‘2014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으로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오는 10월17~18일 개최되는 2014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공모에서 정운학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빛을 다채롭게 활용한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세계를 펼쳐온 정 감독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미술대학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미술대학을 졸업한 뒤 광주·독일에서 7차례 개인전을 열었고, 도쿄 컨템포러리 아트 페어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 광주광역시로 시민과빌리온 미

‘백년 동안의 고독’(1967), ‘족장(族長)의 가을’(1975), ‘콜레라시대의 사랑’(1985) 등을 남긴 그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대소설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마술적 사실주의’의 창시자로서 그가 현대 문학에 끼친 영향은 지대했다. 마르케스는 1927년 3월 6일 콜롬비아 북부의 작은 해안 마을 아라카타

사건 이후 완전히 변해버린 고향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생전에 장편소설 6권, 중편소설 4권, 단편소설집 6권, 논픽션 7권 등을 남겼다. 1967년 발표한 ‘백년 동안의 고독’으로 1982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콜레라시대의 사랑’ 역시 세계 35개국 언어로 번역돼 5000만부가 팔려나갔다. /연합뉴스

정 감독은 “광소재인 LED와 미디어아트를 융합했던 그간의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빛의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주제전시와 빛의 축제, 특별전에 광주작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 페어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 광주광역시로 시민과빌리온 미

술감독(2009), 광주비엔날레 ‘만인보+1’ 프로그램(2010), 광주총장축제 미술감독(2013) 등으로 활동했다. 정 감독은 “광소재인 LED와 미디어아트를 융합했던 그간의 작품 활동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빛의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이라며 “특히 주제전시와 빛의 축제, 특별전에 광주작가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시민 페어를 비롯해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 광주광역시로 시민과빌리온 미

민간오케스트라 ‘네오 필’ 창단 연주회

내일 빛고을시민회관에서

광주에 또 하나의 민간오케스트라가 활동을 시작한다. 네오 필 오케스트라다. 광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차석 유건우씨가 음악감독을 맡은 네오 필 오케스트라는 22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회관에서 창단 연주회를 갖고 첫발을 떤다. 전남대, 독일 필름 음대, 불가리아 소피아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유씨는 지난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을 콩고디 아 음대 대학원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며 지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꾸준히 지휘 공부를 해왔다.

광주 효사랑 남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던 그는 3년전부터 오케스트라 창단을 준비해왔다. 유씨는 지인의 소개로 김해의 코스타 상정업체 성광밴드와 인연이 닿아 올해부터 매년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단원들은 광주시향과 목포시향 단원들이 주축이며 이번 공연에는 65명 정도가 참여한다. 첫 곡은 불가리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알렉산드르 토메스쿠가 협연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협주곡’이다. 루마니아 정부로부터 스텐다리 바리우스를 수여받은 그는 통티보, 파가니니 콩쿠르 등에서 수상했다. 피날레 곡은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휘자 유건우 바이올린 토메스쿠

“클래식 향유 인구도, 학생도 줄어드는 등 클래식은 사양길이다. 대중들과 눈높이를 맞춰 활동하는 연주단체들은 많지만 다소 고지식하게 밀고 나가는 오케스트라도 있었으면 싶었다. 그레아 발란스가 맞는다.” 내년엔 정년퇴직하는 유씨는 “아직 한 부족하지만 치밀한 준비를 통해 1년에 두차례씩 지속적으로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5월19일까지 한정판매